

No. 28

자가 슬괵건을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보강술

가톨릭의대 정형외과학교실 슬관절연구회

최남용 · 한창환 · 고해석 · 남원식 · 김정만

서 론

전방십자인대 손상 환자의 치료 시 슬관절 안정성의 유지와 더불어 고유감각기능(proprioceptive function)의 유지도 중요하다. 최근 전방십자인대에서 기계적 수용체(mechanoreceptor)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가능한 한 남아 있는 전방십자인대를 보존하려는 수술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. 저자들은 전방십자인대 손상 후 남아있는 다발을 보존한 상태로 자가 슬괵건을 이용하여 보강술을 시행한 후 그 임상적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.

대상 및 방법

2004년 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자가 슬괵건(Hamstring tendon)을 이용하여 전방십자인대 보강술을 시행한 15예(남 11예, 여자 4예, 평균나이 35세)를 대상으로 하였다. 최종 추시 시 관절 운동범위, 전방전위 정도, pivot shift 검사 및 슬관절의 기능적 평가를 하여 재건술의 결과를 분석하였다. 전방 전위 정도는 K-T 1000 관절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슬관절의 기능적 평가는 Modified Feagin Scoring System과 Lysholm score를 측정하였다.

결 과

관절 운동범위는 모든 예에서 최종 추시시 0~140도로 운동 제한은 없었으며, KT-1000 관절계를 이용한 경골 전방 전위에서는 20 lb 부하시 정상측과 비교하여 평균 1.5 mm의 차이를 보였다. Modified Feagin knee scoring system에 의한 기능 평가는 92%의 결과를 보였으며, Lysholm score는 술전 평균 70점에서 술후 평균 93점으로 향상되었다.

결 론

전방십자인대 손상 후 남아있는 인대를 보존한 상태로 자가 슬괵건을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보강술은 전방십자인대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더불어 고유 감각 기능을 유지할 수

있어 추천될 수 있는 수술 방법으로 사료된다. 하지만, 더 많은 임상 증례와 장기적인 추시가 필요하다.